

첨단산업의 메카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국내 글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가 이미 아산에 자리하여 자동차 생산라인과 정상 가동되면서 탕정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반도체산업과 세계 최첨단의 LCD단지가 가동하여 아산의 최첨단 산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미 2005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 무역흑자와 48.7%를 달성한데 이어 3/4분기에도 우리나라 무역흑자 175억불을 이어나가 해남으로서 58.4%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하면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특히 탕정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삼성LCD라인이 정상 가동되면 막대한 지역세수의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삼성LCD라인이 정상 가동되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우리시에 입주할 것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둔포에 78만평의 전자정보집적화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도고농공단지조성 등도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정보집적화단지와 탕정지방산업단지를 잇는 도로 확·포장과 조기에 완료하므로서 협력업체들의 물류비용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아산의 이미지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읍봉에는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동안 부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인주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됨

에 따라 조기 본격적인 공장 입주와 기동토록하여 아산시 북부권발전의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인주공단 전경

모두가 행복한 복지 아산 실현



▲ 행정서비스 대상 수상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다변화 등 복지해 지면서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 지게 됨에 따라 시는 꿈고루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서북부권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도고)을 세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를 굳혔다.

관이 지역민들의 쉼터 또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생활의 퀄리티를 높이는 체조교실 등의 운영으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복지관이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 근로자와 청소년에게 또 다른 차원의 복지혜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 복합적인 복지자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또한 비만교실, 기체조 교실, 평생건강을 위한 식단체험 전시회 등 시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노력해 전국보건사업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기초생활사업은 충남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한편 시민 민족과 고객 감동 행정을 혁신과제로 정하고 민원인과 직접 만나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 전직원 행정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대상을 행정혁신시대부문에서 충남도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움 받는 자의 인권이 배려되는 봉사활동으로

아름답던 단풍과 홀남역 펼어지고 암상한 나뭇가지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늦은 가을이 되었다. 화려한 뒤의 공허함과/or서 그런지 웬지 웃이면서도 러운 분위기가 내내 우리를 염두하는 것 같고 나뭇가지 사이를 헤집고 끌어오는 바람도 얼구리를 스쳐 지나가며 우리의 웃음을 좀 더 세우도록 한다. 따스함이 그리운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붉은 색깔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불빛이 웬지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사람의 체온이 가슴의 찬문을 두드리는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지금 곳곳에서 이웃을 위한 자선 봉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불우 이웃돕기 행사인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흡함을 자아내게 한다. 세상 어느 곳을 둘러봐도 우리처럼 사회적 유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잘 찾아 볼 수 없다. 예로부터 이웃사촌이라고 하면서 형제처럼 지내는 품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봉사활동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 누구는 봉사활동이 필요 없다고 하니 누구는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따른다. 어느 한 봉사자는 올해부터 자기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물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것저것 요구를 하니 알 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봉사자는 지난 해 보다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돋고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들고 보면 어느 사람이 옮고 어느 사람이 그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모두 이해가 가는 말이다. 그러면 같은 행위를 두고 왜 우리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하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이제껏 우리는 날을 돋는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즐기만 여겨왔다. 왜냐하면 돋는다는 것을 도와주는 자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편향적인 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에는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은 '도움 받는 주제'라는 생각에서 부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대다수의 머리 속에 박혀 있어 도움 받는 자의 인권은 아무렇게나 편개쳐져 앓던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학에 낙인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인회에 기입하면서 경로잔치에 참석함으로써 노인으로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초창기 경로증 발

급이 부진했던 이유였다. 그만큼 우리는 도움 받는 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명분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 볼 때 날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곧 스스로 거지임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 웬만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도와준다는 것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던 시대에 있지 않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도와주더라도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먼저 그 제목부터 이웃 서로돕기 행사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불우이웃돕기로 돋는 자로 참여하는 사람은 몇몇이겠지만 받는 자로 참여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불우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설사 그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음지언정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불우하다고 공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역경을 헤쳐 나가려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마저 밟아버릴 수 있다. 돋는 자의 만족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도움 받는 자의 입지를 궁색하게 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진정한 정신에도 어긋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말처럼 도움 받는 자의 인권이 배려되는 봉사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 나가는 아름다운 리본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그로 인하여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



도약 2005,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

아산 발전의 성장동력 핵심기반을 닦아 나간다

아산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은 아산신도시개발,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20대 지역개발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중요시되고 있다.

아산신도시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에서 각종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입지하고 안정된 주택공급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은 물론 갖가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문화활동도 전개되어 아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이클론 타워의 아산신도시 인구 50만 바라볼 수 있어

이미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이클론 타워가 발표되면서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부풀어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제 아산은 50만 인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도시의 편안과 더불어 텐정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시의 재정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기업유치 실적도 3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는 이더안 앤섬 성장 흥력을 승냥이 기증하기 위해 21호국도의 6~8차선 확장, 국가지원지방도 70호 건설, 지방도 628호(음봉선) 및 824호(탕정선) 도로 확장, 동서고속도로, 남북고속화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충분한 공업용수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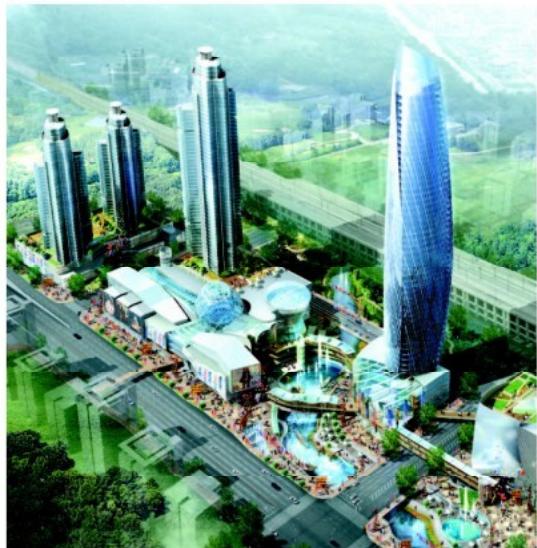
또한 산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충분한 공업용수와 상수도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 충남도시형 지방상수도사업을 전개하며 2006년까지 179억원을 투입 영인과 인주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남동, 품기동 지역과 탐정지역에도 상수도 공급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아산하수처리장의 증설과 소규모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배방, 둔포)하여 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는 도로망의 정비와 확·포장, 개설함으로서 꿈꾸는 이들의 즐거움을 난축하고 기업체간의 연결을 쉽게 하여 교통흐름도 원활히 하면서 기업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공업용수를 확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아산신도시내에 위치할 우리나라 최고층의 사이클론 타워

관광·휴양도시 기반 강화와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



▲ 광덕산 MTB전국대회에서의 역주



▲ 젖풀문화제에서의 다식만들기 체험

관광산업은 최고의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방법과 전략도 다양하다.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기타 자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여주는 문화로 자리 잡는 것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관광여건과 함께 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기로 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 대표축제의 전국축제화와 지역축제 활성화

우리시를 대표하는 섬몽이순신축제가 3년 연속 국가지정문화축제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축제를 만들고 함께 참여했던 21만여 시민의 땀과 열정이 하나로 풍차면서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상과 반속과 시무 잔치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아산 알리기에 큰 뜻을 담당하면서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 45만여 관객이 발걸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해 아산시민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이와 함께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가 짜임새 있는 구성과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성공리에 치러져 지역예술인들이 출연출한 설화예술제가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면서 아산인의 재능을 맘껏 발휘하여 풍성한 볼거리로 제공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다.

■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적극대처

건강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 가족단위로 참여해서 체험하는 관광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만들며 흥보하는 일에도 시는 전력을 다하여 수도권전철의 은양운행, 주5일제근무의 확대 등 주변변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아산호와 삽교호를 잇는 해안관광도로를 개설하여 새로운 드라이브코스로, 영인산과 친환경수목원을 건립하여 휴양림, 물썰매장, 눈썰매장과 함께 4계절 가족단위 관광지로, 시원한 물줄기를 간직한 강당골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웨빙타운을 건립, 여기문화공간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악과 온천으로 유명한 도고예 족한 오천·운기 체험관을 만들어 가족단위의 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삼성LCD 등 첨단산업과 연계된 산업체험, 광역산(MTB코스), 도고산, 영인산의 등산로와 은연을 연계한 레포츠·주말농집, 화훼체험, 배꽃마을, 친환경농업등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들을 발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을 연 세계꽃식물원 각종 이벤트를 널리 알리고 뇌남민속마을, 봉곡사, 담립미술관, 팽정승고택 문양, 도고, 아산온천 등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생생한 직원과의 대화(041-540-2468)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전화안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생산자가 흐뭇한 아산,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특산품

시는 『아산쌀 명품화』, 『친환경농업육성』, 『특화농업육성과 농촌 체험관광』이라는 3대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 맑은쌀은 지난해 생산자가 뽑은 전국최고의 쌀이라는 품질을 인정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농림부와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최우수 쌀로 대상을 수상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인정하는 『명품 아산 맑은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했다.

전국 최고의 쌀 아산 맑은쌀이 되기까지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계약재배, 완숙퇴비, 고급 유기질비료의 밀거루, 벼전조, 저작시설 및 RFO에 대한 지원 등을 이루어 냈으며 기후 조건 또한 품질 좋은 아산 맑은 쌀을 만드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충분한 일조량과 높은 일교차가 벼농사에 이상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미립요소가 풍부에 영양가가 높고 미그네슘 함량이 기준치보다 많아 밤마다 우수한 것으로 경쟁력이 나오았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TOP RICE(전국 최고 쌀)생산단지에서 차별화된 품질의 아산 맑은 쌀이 출하되어 농협의 하나로 미트(서울 양재동)를 통한 홍보 행사와 함께 백화점 등에 높은 가격으로 시판에 들어 갔다.

여기에 수도권지역의 소비자를 겨냥한 홍보 전략,



▲ 아산 맑은 쌀 대상 받던 날

관내 기업체, 농협, 대형백화점 등의 판매망을 브리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 여름 휴가철에는 관련 공무원과 생산자들이 강원도에 현지 출장하여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에게 폭넓은 아산쌀 홍보를 전개 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7개년계획과 친환경클러스터사업(아산뉴스 137호·5월호)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 있으면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친환경 농업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워내고 있다.

이와함께 도시인들에게 귀중한 농촌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던 무료 주말농장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내 기업체 생산현장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내 기업체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방죽동 흑참육수수미을 연계, 한가위에는 삼성코닝정밀유리 현장에 직거래 매장을 개설하여 기업체 직원들은 시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농민은 애써 가꾼 생산품의 제값을 받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형 농기계를 작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대여운행을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 듣고 해결해 주는 이동영농교실, 농기계수리센터가 농민들의 사랑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광경비 확대지원, 영농사내 공급, 농사리용 상로 공급 등 농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아산의 농특산품의 판로 개척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시민에게는 우수하고 안전한 상품(上品)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된 판로 소득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명문학교 육성

열악하기만 했던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은 집중적이고 과감한 교육지원과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의 변화로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시는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부실한 인적자원의 인프라와 교육환경에 있다고 보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함께 모아나가기 시작했다.

외국어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 운영, 어학실지원 등을 통하여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명문학교 만들기에 공을 들였고 미국 랜싱시

와 타일러시 등에 방문단을 보내고 또 담방으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자녀들이 마음 놓고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 학생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면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참여, 청소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장학재단을 발족, 장

학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서 지역영재를 키우고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아산신도

시 등 확장돼가

는 시세와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인구를 적극 수용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용화초,

광곡초, 용화중, 용화고)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신정초 등 학교신설이 계획돼 있어 변화되는 교육환경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 재미있고 신나는 원어민 수업

밝은 청소년, 여성의 사회참여, 생활체육의 건강한 도시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품과 재능을 키워주며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의 몫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전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도 다양하다.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인 「發樂」이 매년 문화의 거리에서 흥겨운 가락과 신나는 놀이체험이 전개되어 청소년들을 설레게 하고 청소년어울림당도 손꼽아 기리는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다. 또한 한여름 밤이면 신정호에서 펼쳐지는 신정호 한마당 축제와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혜택과 함께 지니고 있는 재능을 맘껏 발휘 할 수 있도록 권곡동 일원에 문화종합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힐티자 문화 공간이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졸업 이후 대학과 사회로 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필요안 이비서 비케팅, 베이크업 자기선풀법, 청소년을 위한 성공 길라잡이 등의 재미있고 유익하게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유명강사가 강연을 맡아 왔다.

■ 노인체전 연속 준우승, 성장하는巾勢따라 큰 성과 거둔 것으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듯이 활발한 체육인들의 활동이 성장해 가는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 도민체전 2위 달성은 시민들이 체육인들에게 보였던 뜨거운 응원과 전폭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21만여 아산시민이 함께 일궈낸 값진 승리라 평가 받고 있으며 전국체전에서 충남도가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시 출신의 선수들이 마련함으로서 선수와 시민 모두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6면에 계속되어집니다.)



▲ 비즈공에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 2년 연속 도민체전 2위 달성

<5면에서>

지난해 이어 도민체전 2위 달성을 시민들이 체육인들에게 보냈던 뜨거운 응원과 전폭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21만여 아산시민이 함께 일궈낸 값진 승리와 평가 받고 있으며 전국체전에서 충남도가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시 출신의 선수들이 마련함으로서 선수와 시민 모두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층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노력하여 향상된 실력을 유품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일고 있어 체육인의 자변화대는 물론 힘과 사기를 복돋아 주고 있어 체육부문에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여성! 사회가 귀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추구와 함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맘껏 발휘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전달 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고 있고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대학, 취업교실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농업기술센터와 국민생활과 육화연합,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도 여성들의 용융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다.

읍면동 소식

온양3동 아파트 입주 현장에 이동민원실 운영

온양3동에서는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시민 만족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아파트 현장에서 전입신고 등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고 입주 원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입주일정 확정, 금요일 10:00~16:00에 이용이 가능하며 이곳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동민원실을 이용하면 임입신고처리는 물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등의 생활민원상담과 이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입주하면서 이동민원실을 이용한 김 모씨는 '새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으로 이사의 어려움도 잊고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전입신고마저 수월하게 처리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산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시민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온양3동 사무소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명예기자 황유순)

스마트 아산은 장바구니 사용에서



온양4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최문호)는 지난 23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350개의 장바구니를 마련하여 관내 6,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장바구니 행사는 일회용봉투의 무분별한 사용 자체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깨끗한 아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한다.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들은 젊은 세대들이 편리함만을 추

구하는 과소비 생활패턴에 경종을 울려 주고 장바구니를 이용한 시장보기 등 그만 일이라도 전시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서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회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큰 의미를 부여 했다.

(명예기자 명경숙)

사랑이 넘치니 김치가 따뜻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사랑의 김치를 담갔다.

지난 18일과 19일 17개 단위봉사회 회원들은 온양6동사무소에서 1500여 포기의 배추 절이고 한포기 한포기의 사랑과 정성의 양념속을 넣으면서 김장김치를 받고 기뻐하실 지역 어르신들을 때울리며 일손을 서둘렀다.

사랑과 정성으로 벼무대진 김장김치는 17개 단위봉사회에 나누어져 어려운 혼자 사는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들에게 전해지며 이와 함께 봉사회원들이 주비한 김·1박스씩도 같이 전달 된다.

사람의 김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탕정면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원 60여명과 삼성전자 탕정사업장 본사 60여명이 김자김치를 담고 쌈을 준비하여 저소득층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회원과 기업체 봉사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뛰어 넘어 니즈에 쭉해로 밟았겠다.

이 밖에도 온양6동 등 각 읍·면·동의 새마을협의회 김장 나눔 잔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닉처를 겨울 추위틈은 거뜬히 이겨 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회망의 불씨가 되어 훈훈한 아산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기자 심춘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김정희)

유관기관 소식

동물·축산물 검역안내

구제역·공부병·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죽전염성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과 곤충위생 활동에 기여하고자 동물검역을 실시합니다.

□ 신고대상 휴대검역률

- 개·고양이 · 애완조류 등 동물
- 녹용·뼈·혈분등 동물의 생선물
-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닭고기 및 소시지·햄·육포·장조림·통조림·삶은 고기 등 수육가공품
- 우유 및 치즈·버터 등 유가공품

□ 알 및 난백·난분 등 알기공급

-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도착 입국심사 세관휴대품신고서작성

동물검역 세관심사 입국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1588-906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중간예납기간은 2005. 11.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년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05. 11. 10(목)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5. 11. 30(수)까지 가까운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로 하시면 됩니다.

다면 올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주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발생과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559-8352~9 | 전문세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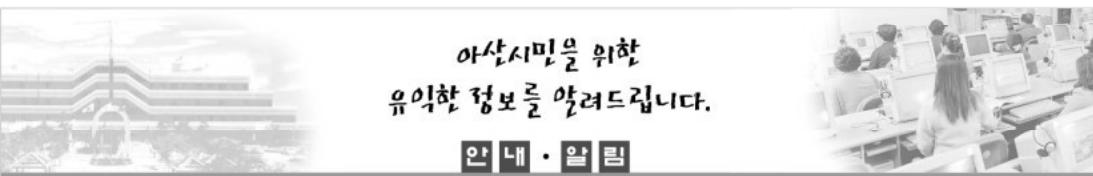
□ 천안세무서: www.dnts.go.kr/ca

아산만평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내 · 알림



이산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4. 4. 1~2006. 12. 31(2년 9월)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접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신청방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신청서 교부요청(아산시 지적과)
- 증빙서류 : - 토지등기부등본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서식 제공)
-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접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접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의 내용증표 표시하는 명세서(서식 제공)
-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서식 제공)

이산시, 200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2월 5일~12월 12일(6일간)일까지 6일간
- 신청장소 : 동지역은 시청 지역경제과(또는 아산시취업정보센터)에서 읍·면지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 사업기간 : 2006년 1월 9일~2006년 3월 24일(53일간)실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74,483천원으로 선발예정인원은 90명이다.
- 주요사업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화재경보사업(국도공원화사업) 등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 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 신청제외자 : 청년실업대학사업 외에는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 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410천원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가능),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410천원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시·읍·면·동사무소비치), 건강보험증, 아산시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구직활동확인서, 휴학증명서(해당자)
- 기타문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540-2047~8),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이산시 선거구 확정 알림

| 노회원 선거구명 | 시군의원 구구명 | 시·읍·면 의원수 | 선 기 구 | |
|-------------|-------------|--------------|---------|-------------------------------------|
| | | | 선거역 | 선거구 |
| 계 | 4개소 | 12 | 203,292 | 17개 읍면동 |
| 제1선거구 | 아산시 가 | 4 | 61,414 |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안주면, 둔포면, 영민면(마애읍) |
| | 아산시 나 | 2 | 34,798 | 운양1동, 운양2동, 운양3동(3개동) |
| 제14선거구 | 아산시 다 | 3 | 50,029 | 송악면, 배방면, 선창면, 도고면, 신창면(5개면) |
| | 아산시 라 | 3 | 57,051 |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3개동) |

모든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 범죄의 징후나 의심이 날 때도 「112」로 신고하면 미연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혀위·장난·비범칙성 생활인원 신고를 자제해야겠습니다.
- ▷ 범죄 신고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 ▷ 중요범인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여 주신 신고 민예제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 ▷ 범죄신고의 생활화로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킵니다.
- 〈112신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 범죄신고(112)→112신고센터→112순찰차, 형사기동대, 순찰경찰관→신속한 현장도착(검거 등 조치)
- 〈범죄신고는 112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2006년도 아기스포츠단 원아모집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2006년도 신입 원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및 정원
 - 5세 : 1개반(20명) · 2002년 3월 ~ 2003년 2월생
 - 6세 : 2개반(50명) · 2001년 3월 ~ 2002년 2월생
 - 7세 : 1개반(30명) · 2000년 3월 ~ 2001년 2월생
- ▷ 모집인원은 재원신청에 따라 정원에서 변동 가능 - 신청접수시 알림.
- ▷ 대상 원아의 주민등록이 이산시로 되어 있어야 접수 가능함.
- ▷ 신청자 접수기간 : 2005. 12. 12. ~ 12. 16(5일간)
- 모집방법 : 공개 추첨 모집 (추첨일-2005.12.19(월) 10:00 극장)
- 신청서 접수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장소 : 국민생활관 1층사무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국민생활관 비자),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에는 접수 불가)
- 교육기간 : 2006년 3월 입단 ~ 2007년 2월 졸업(매주 1~2회)
- 수업기간 :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 수업내용 : 수영, 바이올린, 태권도, 빌레, 애절, 미술, 한자, 과학, 숫자, 한글수업 등
- 치량운행 : 시내지역(용화, 온천, 모종, 방죽, 광곡동 빙어) 시내외 지역은 서둘러스가 우회되지 않는 과정에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개인등원 시에는 접수가 가능)
- 교육비 및 기타비용 : 월평균 105,000원
 - 교육비 : 월 90,000원(자모회비30,000원 포함 - 식비 및 간식비비용)
 - 과학교재비 : 월 5,000원
 - 미술교재비 : 월 5,000원
 - 재료비 : 월 5,000원(1.2학기 각 30,000원 별도)
 - 기타 : 단복, 도복, 발레복, 가방, 수첩비 등을 별도
- 기타문의사항 : ☎ 540-2079, 2587

시정신문 휴간 알림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의거 아산뉴스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잠시 휴간합니다. 보다 알찬 내용과 유익한 정보로 2006년 6월 여러분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신정호 관광지 산책로 공사로 인한 통행제한안내

- 신정호관광지의 산책로를 경비하여 보다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코자 산책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오니 산책로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5. 12. 8까지 산책로에 한하여 이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호관광지 음향기기 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05. 11. 9 ~ 2005. 12. 8(준공예정)
 - 사업물량 : 스피커설치 60개소
- 신정호관광지 경계석 교체공사
 - 공사기간 : 2005. 10. 20 ~ 2005. 11. 28(준공예정)
 - 사업물량 : 경계목설치 L= 500m
- 기타문의 : 신정호관광지 관리사무소 540-2518

일방통행, 주정차금지구역지정 안내

- 일방통행 지정
 - 지정구간 : 굴다리2길(금박사햇집⇒남산4거리)
 - 지정일자 : 2005. 12. 20
 - 지정사유 : 교통혼잡 해소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 6 조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지정구간 : 남산1길(남산4거리⇒온양문화원)
 - 지정일자 : 2005. 12. 10
 - 지정사유 : 버스운행 및 교통혼잡 해소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 28 조
- 기타문의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540-2369

시청앞 광장조성공사 실시안내

- 장소 : 시청앞 잔디광장 일원
- 공사기간 : 2005. 11월 ~ 2006. 4월말(준공예정)
- 주요사업 : - 부지조성 : 객토후 조경적 미운정 면적 / 체육시설
 - 조경수목 : 소나무, 유실수, 야생화, 회관목류 등
 - 전기/음향: 바닥조명, 수목투사등, 잔디등, 음악스피커
- 시공처 : 천흥조경건설(주)
- 주관부서(문이하) : 산림녹지과 공원단단(540-2027)
- 시민협조 사항 : 본 공사로 인한 시민안전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잔디광장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탁 국비(2년)과정 입학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 컴퓨터응용기계과(66명), 시스템 제어과(66명), 메카트로닉스과(66명), 유비쿼터스제어과(33명) / 교육기간(06. 3월 ~ 08. 2월)
- 보답내용 :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사도서 반 29세 미만의 남·여
-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전형
- 원서접수기간 : - 수시모집 : 2005. 12. 23까지
 - 정시모집 : 2006. 2. 23까지 * 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접수 가능입니다.
- 입학정원 : - 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무료
 - 기숙사 및 식사 무료 제공
 - 전문학사 학위/산업기사 취득 가능(전문대학과 동등) 외 다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 문의처 : 충남인력개발원 TEL 041-650-9560 0, 인터넷 <http://www.kccicn.or.kr>

오데와 “사랑의 묘약”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문화프로그램들…

12월 1일 올립릭기념 국민생활관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공연된다. 꾸준한 음악활동과 함께 청소년들의 예술 감성을 기워주기 위해 노려온 예산오 페란단(장군 이우순)이 주최하고 박경일이 연출하는 이번 공연은 알기 쉽게 해설이 결들여 진다.

■ 해설이 있고 재미도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오페라』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막을 여는 이번 오페라 공연에는 공연 관람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상세하고 쉬운 해설이 미련과 끝으로 낯설고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오페라가 한결 재미있는 익숙세계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니베토의 사랑의 묘약 오페라 공연을 준비한 이우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과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깨우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면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에게 편한 시간, 예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편한 시간’으로定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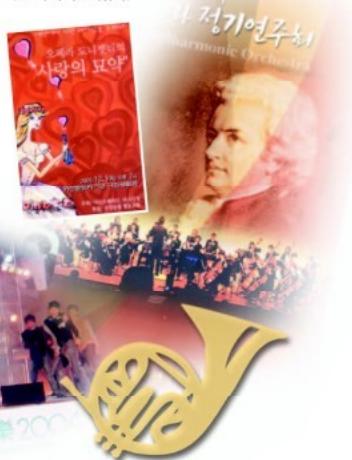
유 있는 워포가 되어 주고
다' 그 밖에다

이와 함께 11. 12월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각종 공연과 전시회,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전개되고 계획돼 있다.

■ 아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5월 청간하여 찾아가는 연주회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아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25일 휴가로의 결혼식과, 내마음의 강물, 무정한 마음, 모차르트 심포니 29번 등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매혹적인 아산의 높기장을 수놓았습니다.

래를 위하여 와 강사 김은정에게 새내기를 위한 이미지마케팅 및 자기연출법(12월 2일만) 메이크업과 자기연출법(12월 3일만)을 배운다. 또한 대학동아리팀의 멘스공연 등이 펼쳐져 의미 있는 고3생활,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갈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생활관이 프로그램 참여가족을 기다립니다

교양·문화 강좌

| 과 목 | 인원 | 요일 | 교육 시간 | 교 육 내 용 |
|------------|----|------|-------------|----------------------------------|
| 일정증명 우리가족 | 20 | 월 | 10:00~12:00 | 부부의사소통의 삶의학 |
| 부모자녀 대화법 | 20 | 목 | 10:00~12:00 | 부모 자녀 대화법,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 |
| 생활 활 티 차 기 | 25 | 수, 토 | 10:00~12:00 | 평생 굽는 6 가지 |
| 서 예 | 25 | 화, 목 | 14:00~16:00 | 문장구조 및 작품읽기 |
| 생활행동(초급) | 20 | 수, 주 | 10:00~12:00 | 기본이론 및 이론 및 회화 |
| 생활행동(중급) | 20 | 월, 수 | 14:00~16:00 | 생활행동 이론 및 회화 |
| 일 본 어 | 20 | 토, 금 | 10:00~12:00 | 생활행동 이론 및 회화 |
| 중 국 어 | 20 | 수, 금 | 10:00~12:00 | 중국어 이론 및 회화 |
| 서 양 악 | 20 | 화, 화 | 10:00~12:00 | 유익한 음악 체험과 청중 |
| 영어공연 | 20 | 화, 토 | 14:00~16:00 | 본인의 다양성, 복잡성 |

건강 · 스포츠 교실

| 과 목 | 인원 | 요일 | 교육 시간 | 교 육 내 용 |
|-----|-------|----|---------------------|--------------------|
| 댄 스 | 초급반 | 20 | 월, 목 12:00-14:00 | 자이브, 차차차, 블라 등 |
| | 중급반 | 20 | * 14:00-16:00 | * |
| 스포츠 | 제작반 | 20 | * 18:00-20:00 | * |
| | 보전반 | 60 | 월~금 11:00~12:00 | 기초기본, 개인보양증 등 |
| 배 뱠 | 어려운반 | 60 | * 13:00-15:00 | * |
| | 개인화반 | - | 년중무휴 06:00-08:00 | 회원간 자율적 운영 |
| 민 헌 | 제작반 | - | * 20:00-22:00 | * |
| | 아침반 | 30 | 월~토 10:00-11:00 | 원소년부동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동 |
| 에 어 | 개인화반 | 20 | 월~금 10:20-11:10 | * |
| | 페니체반 | 20 | 월~금 10:20-11:10 | * |
| 월 스 | 나눔봉사 | - | 06:00-21:00 | 마션레이트 등 |
| | 일반체육원 | - | 월~토 06:00-21:00 | * |
| 수 영 | 강습회원 | - | 월, 토 06:00-21:00 | 자유형, 배영, 평행, 접영 등 |
| | 체육교사 | - | 월~금 10:00-11:00 | * |

- 민진기간 : 2005년 12월 1일부터 선헌수 민진
- 접수처 : 아산시율림복지기념국민생활관
(본관/540-2591, 2449)
- 준비물 : 수강료(재료비는 별도), 신청서
- 교육기간 : 2006년 1월 ~ 2월(수료증교시 1개월)

기술 : 기능 교육

| 과 목 | 인원 | 요일 | 교육 시간 | 교 육 내 용 |
|---------|----|------|-------------|-------------------|
| 한식조리기능사 | 20 | 월, 목 | 10:00~12:00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
| 생활 요리 | 30 | 화, 금 | 14:00~16:00 | 기본적인 생활 요리 및 생활요리 |
| 제과 제빵 | 20 | 수, 금 | 10:00~12:00 | 작립 길드 행운 쿠키 |
| 한복·양재 | 20 | 화, 목 | 10:00~12:00 | 한복, 양재 수선 |

Smart Asan

사람과 자연, 최첨단 산업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스마트 아산

2006년 시점 비전

- ◆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최첨단 산업도시』
- ◆ 자생력 있는『중부권 중추도시』
- ◆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스마트 도시』
- ◆ 아름답고 체계적『도·농 복합도시』
- ◆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성숙한『문화도시』
- ◆ 지방화 시대를 서도하는『리더 도시』

